

이후 나는 '이 세상에 실패라는 게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가지지 못한다면 모두 실패에 속하게 되는 걸까? 모든 시도엔 결과가 따르고 거기엔 모두 나를 성장시킬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앞서 좌절 후 회피해버린 것들은 실패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 무엇이 실패인가.

누군가는 내가 적은 나의 일화를 보며 실패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이야기를 실패랍시고 적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실패를 잘 딛고 일어서서 용기를 내었고 이만한 성취를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말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했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었다. '시도'와 '좌절', 그리고 그에 맞설 '힘'과 '용기'가 있었을 뿐이다.

실패, 시도의 잘못된 표현

000
KAIST 생명과학과

My failure story

실패, 시도의 잘못된 표현

무언가를 도전하는 일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얻는 것의 크기만큼 잃는 것도 크다면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게 인간관계라면 더욱 그렇다.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칠 선택이라면 누구라도 선택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소통을 포기하면 관계는 단절되고 만다. 그렇기에 고심했고, 어느새부터 인가 숨 막히는 공간이 되어버린 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큰 용기를 냈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일상엔 가족이 어설피게 끼어 있었다. 일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떠올리면 어딘가 까끌까끌해서 부정적인 기분이 먼저 떠올랐다. 가족이 불편하니 일상이 불편했고, 가족보다 친구가 더 편할 지경이었지만 정작 편히 쉴 곳은 없었다. 그렇다고 부모님의 폭력이 있었다던가, 가족 간의 사이가 틀어질만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건 '말' 때문이었다. 서로가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사랑에서 나왔다가에는 날카롭고 따갑기만 해서 대화를 통해 서로가 얻을 있는 건 상처뿐이었다.

나의 어머니께서는 매우 강인한 분이셨다. 점점 어려워지는 생계를 홀로 감당하고자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려 자식에게 화를 내거나 손을 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훈계할 때는 언제나 훈나는 이유를 제시하셨고, 그 이유는 언제나 타당했다. 또한, 잘못의 크기가 크든 작든 혼내기 직전엔 자식은 거실에 앉혀놓고 본인은 베란다에서 홀로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리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언제나 본받고 싶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긋났다. 어머니께서 칭찬보단 훈계를, 공감보단 이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자기주장이 세고 고집이 있었기에 간섭하는 일을 참지 못했다. 넷이나 되는 자녀를 언제나 이해하고 존중해 주기에 어머니께서도 점점 힘이부치게 되셨고, 우리의 대화는 점점 갈등이 되어갔다. 네 명은 사회적으로 어긋나지도 모나지도 않았으나, 가족이라는 사회는 조금씩 금이 갔다. 내가 성인이 되어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챘을 땐 이미 많은 것들이 손대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대학을 졸업한 후였다. 연이은 실패로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한 내가 더 이상 가족들과의 대화를 건디기 힘들어진 것이다. 내가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나를 가장 믿어 주어야 할 그들이 나를 상처 입히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도움이 될 말이긴 했다. 하지만 그때의 내겐 너무도 큰 상처였고, 큰 좌절감을 느낄 일이었다. 정말로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남지 않은 듯한 심정이었다.

그래도 동생들과 푸는 건 쉬웠다. 내가 평소에 그들에게 좋은 언니, 누나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부분은 내가 듣기 힘들니 말할 때 유의해달라고 했고, 동생들은 그런 내 부탁을 문제없이 수용해 주었다. 문제는 어머니와의 대화였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언제나 생계 문제와 나의 실패, 좌절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해결책도 없고 내 스스로도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 핵심 요소였다. 그래서 나는 처음엔 그저 회피하기만 했다. 되도록 어머니와 얘기를 하는 것을 피했고, 빠른 시일 내로 성과를 거두면 모두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과는 쉽게 나지 않았다. 어디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감과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는 망설임이 나를 어디도 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더욱 나빠져만 갔다. 어머니께서도 자식 4명의 학업을 책임진다는 부분이 힘들셨겠지만 장녀인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주춤거림으로 인해 동생들 또한 문제가 생겼다면가 자리를 잡지 못해 독립하지 못하고 금액적인 손실을 내고 있다던가 하는 말들을 하실 때마다 집에서 의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졌다. 내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사치로 느껴져 갔고, 빨리 자리 잡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으며 불안정한 미래에 조바심이 났다. 자기소개서의 빈칸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택한 회피라는 방법이 답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그토록 피했으면서 막상 하려고 하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전부 막막하기만 했다. 하고 싶은 말을 속에 눌러 담은 성격도 아닌데 쌓인 감정이 있어서인지 그게 쉽지 않았다.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조차 이상하리만치 잡기 어려웠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어머니만이 집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큰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대화를 청했다.

하고싶은 말은 많았고, 타이밍을 재는 동안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실전에선 사용 되지 못했다. 담담히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특 던지신 “왜, 돈 필요해?” 라는 말에 감정이 터져 버린 것이다. 울분에 못 이겨 소리치고 분노를 대담으로 받고 나선 서로 막말을 주고받으며 감정이 치달아 결국 파국을 맞이했다. 첫 번째 시도는 어이없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My failure story

실패, 시도의 잘못된 표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진정하고 나서야 후회가 찾아왔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는데, 하려고 생각했던 말의 대부분이 입 밖에 나오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너무 억울해졌다. 이대로 끝내버리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만 같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에 오기가 생겼다. 얘기를 못 끝냈는데 그냥 이렇게 뒤버리면 이제껏 도망쳐온 자신과 다를 게 뭔가 싶었고, 그래도 나는 시도를 했다는 비겁한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말해보아야지 하면서도 이전 날의 반응을 기억하기에 다시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전 날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 해봤는데 두 번은 못 해볼까 싶은 심정으로 나는 다시 어머니께 대화를 청했다.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차가우셨다. “왜, 또 울고 소리치게?”라는 어머니의 말에 나는 진지하게 “끝내지 못한 말을 다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대화를 받아주셨다.

어머니께서 저를 믿고 사랑해 주시는 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망감도 느끼고 계실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응원과 칭찬이 필요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내 단점을 찾는 건 중요하지만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장점보다는 단점을 짚어주시면 그 말은 비수가 되고, 남과 비교하시는 만큼 제 심정은 땅으로 꺼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지만 자존감이 떨어진 지금은 어머니께서 제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절 사랑한다는 것도,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꺼내셨는지도 알고있지만 제겐 너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제 나름대로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렸는데 어머니께서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도피를 선택하셨다. 솔직히 화를 내시거나 반박하실 줄 알았기에 어리둥절했다. 전할 말을 다 전했는데도 시원하지 않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다. 상황을 지켜보다가 홀로 마음을 추스르시고 오신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은 모습을 보고선 방에 들어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까지의 일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곳곳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던 어머니의 약한 모습은 아직도 내 뇌리에 박힐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대화를 통해 상처받은 것은 나 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분명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 힘든 것 밖에 보지 못했다. 다른 이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건 변명이었다. 날이 서 공격하기만 한 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던가. 배려받기를 원하던 나는 배려를 했던가.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배려는 무엇이고 그것을 배려라 부를 수 있는가. 냉정히 자기반성을 하고나니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나이만 찬 어린아이 같은 행보를 변명할 여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존중해드리지 못했으며, 배려해드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존중받고 배려받지 못하는 점에만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 시도하고 나니 이제 어머니께서 먼저 대화를 청해 주셨다. 나름대로 사소한 반항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썼던 '싫다', '딴다'라는 감정적 표현이 어머니에겐 상처가 되고 있었다는 게 주제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말했고, 수용하고 고치기로 했다. 다행히도 우리는 점점 좋아졌다. 상황이 힘든 것과는 별개로 일상이 즐거워졌고, 나는 새 출발을 준비할 힘을 얻어 마침내 카이스트 합격이라는 결과물 하나를 얻게 되었다.

이후 나는 '이 세상에 실패라는 게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가지지 못한다면 모두 실패에 속하게 되는 걸까? 모든 시도엔 결과가 따르고 거기엔 모두 나 를 성장시킬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앞서 좌절 후 회피해버린 것들은 실패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 무엇이 실패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좌절을 겪었다면 모두 실패인가? 그렇다면 성공은 어떤 것일까. 또 행복은 어떤 것일까. 저마다의 기준을 다른 가치를 우리는 한 단어로 정의하고 묶어 낼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왜 시도에 따른 좌절을 '실패'라고 이름 붙인 걸까?

누군가는 내가 적은 나의 일화를 보며 실패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이야기를 실패랍시고 적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실패를 잘 딛고 일어서서 용기를 내었고 이만한 성취를 거두었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말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했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었다. '시도'와 '좌절', 그리고 그에 맞설 '힘'과 '용기'가 있었을 뿐이다.

'실패'라는 말처럼 사람의 자존감을 퍽퍽 깎을 수 있는 말이 얼마나 존재할까. 우리는 몇 번의 시도에 숭한 좌절을 겪는다. 이에 맞설 힘과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딛고 나아가 성장할 수 있다. 당장에 성취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후에 이를 성취의 밑거름을 얻을 수 있다. 힘과 용기가 없다면 배우면 되고 얻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로부터 힘이나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더한 좌절을 배운다. 너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렇게 낙인찍는 순간 우리는 더한 좌절을 맛보게 되며, 덧칠해진 좌절로 인해 진짜로 봐야 할 것을 덮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실패'는 쌓여가고 우리는 성장할 기회마저 잃은 채 빛을 잃고 추락한다. 나는 앞으로 '시도'에 관용적이고 '좌절'한 이를 격려하며 '노력'에 집중하고 '성취'에 반가워하는 사회가 오길 희망한다.